

청소년들, 이런 문화를 원한다



강 대 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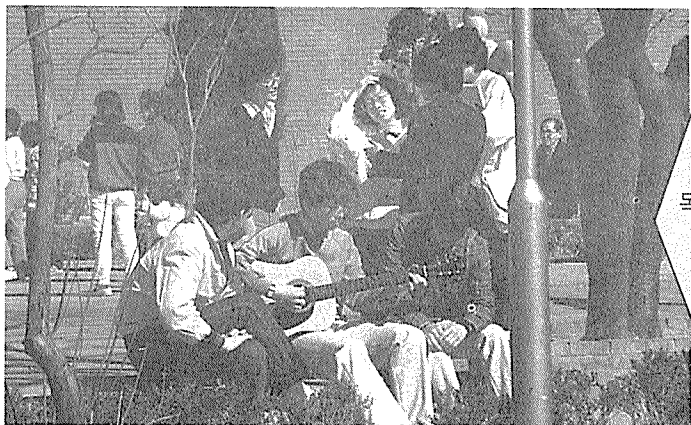
“요즈음 젊은 애들은”이라는 기성세대의 자조와 냉소적인 표현 뒤에는 오늘의 청소년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이 복합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가 하면 “웬 참견이세요, 상관마세요”하는 청소년들의 대답 속에는 비뚤어진 반항의 몸짓이 배어 있다.

흔히 어른들은 청소년 세대를 미래의 주인공이라거나 우리의 미래를 잉태한 세대라는 표현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한 관심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

속에서 이어지는 세대 간의 역할을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일진대,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현실적 공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기성세대는 기성세대 대로의 입장만이 주장될 뿐 아무런 공통 분모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성세대의 시각에 비치는 청소년은 모두 문제의 청소년으로 보이거나 일탈과 비행의 주인공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환각제의 복용, 성윤리의 붕괴, 폭력, 자살 등의 이야기가



몇몇
사람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향유되는
문화는 결코
청소년의 빛이
될 수 없다.

신문지상에 오르내릴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한 참회보다는 자포자기의 무력감이나 책임 전가의 구실 만을 찾고 있는, 위선과 기만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기성세대의 노력을 본다.

도피하고 싶은 현실이 주는 압박으로 ‘죽고 싶은 청소년’과 ‘모든 것을 잃어 버리고 싶은 청소년’과 ‘무엇이든 부서버리고 싶은 청소년’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서성거리고 있다.

무엇이 오늘 우리의 청소년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가? 무엇이 오늘 우리의 청소년들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오늘 우리의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가? 우리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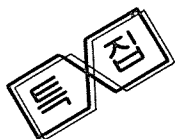
오늘의 현실과 청소년을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냉정함을 요구하기 어렵다.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연구’는 청소년의 삶을 죽을 통계 속으로 몰아 넣어 네모진 표속에 의미없는 숫자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객관성’을 요구하는 청소년에 대한 논의는 연구자와 독자와 청소년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인간화의 도시 속에서 인간적인 삶을 청소년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향유되는 문화는 결코 시대의 뒤안길에서 어두움의 자식으로 성장하는 비행의 청소년 세대에게는 빛이 될 수 없다.

청소년에 대한 기성 세대의 관심이 기성 세대만이 누리하고자 하는 권위와 특권의 영역을 확보하고, 기만과 위선을 정당화시키려고만 한다면 청소년이 설 자리는 없다.

분석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학자들의 청소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나 자기 정당화나 자기 이상의 대리 실현이라는 기



성 세대의 권위적인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결코 청소년에게 삶의 보람과 자기 성취의 기쁨을 제공할 수 없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좌절과 분노의 절규를 들을 뿐이다. “죽을 수 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구요! 그런건 묻지 마세요. 상관 마세요.” 누군가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면서 청소년의 일탈과 비행은 그 청소년이 직면하는 현실 속에서 찾아낸 유일한 문제 해결의 방안이었다고 설명하였던가?

3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청소년에게 대한 기대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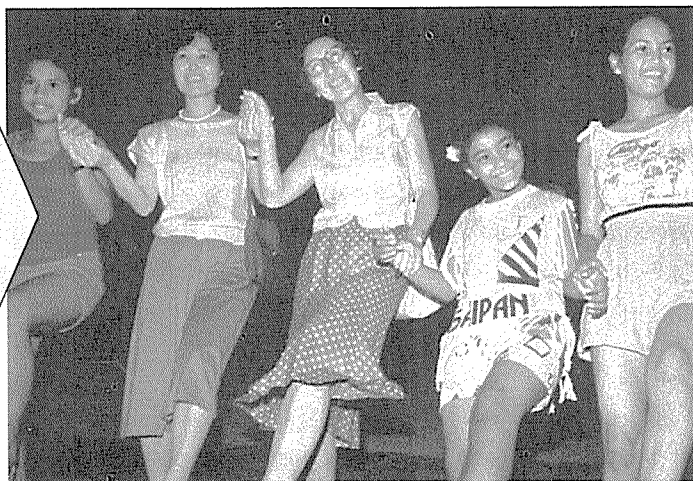
관심을 늦출 수는 없다.

청소년 세대와 기성세대의 세대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태어날 때부터 부여 받은 인격으로서, 창조적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잉태하고 있는 공동체의 성원으로 서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은 우리의 삶과 문화에 대한 각성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는 이미 청소년들만이 향유하는 특수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청소년과 어른을 함께—에게 공유되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세대가 보여주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성공 제일의 경쟁주의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윤리와 정신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금-여기’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윤리와 정신이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여기’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죽임의 문화’에서
‘살림의 문화’로,
‘나의 문화’에서
‘우리의 문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청소년만을 위해서 특별한 윤리와 도덕을 강요하는 기만과 위선의 문화를 깨뜨리지 않고는 결코 오늘의 청소년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즉시적이고 대응적인 처방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 그들이 미래의 주인공임을 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그들과 공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간적이고 찰라적인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라 오늘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내일에 대한 건강한 계획이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은 오늘 우리의 청소년들이 갖는 자유로운 창조성과 무한한 가능성에서 찾아진다. 우리는 청소년들을 한 인격 주체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창조성에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지금-여기’의 삶의 공간에서 자기 실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자기 실험

은 청소년임으로 해서 실패의 가능성을 함께 갖는다. 그들의 실패를 더 이상 일탈이나 비행으로 몰아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노력은 오늘 우리의 ‘아이’들에게 거는 믿음과 사랑이 굴절없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4

인간의 이기적 독선과 우월의식은 올 여름의 홍수 속에 죽어간 사람들에게 대한 비통한 눈물로 씻어내야 한다. 청소년의 일탈과 비행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이 흔히 분석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의 결과로 치유될 수 없다.

오히려 온 사회의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참으로 사람다운 인격적 만남이 가능해졌을 때 우리는 청소년의 행동과 생활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청소년의 문화가 어찌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책임 회피의 자기 기만이다. 오늘 우리의 문화 전체가 전체로 한 이념적 전환이 필요하다. ‘죽임의 문화’에서 ‘살림의 문화’로, ‘나의 문화’에서 ‘너와 나의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

그럴 때 “왜 담배를 피우니?”, “왜 술을 마시니?”하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간섭이 되지 않을 것이다.

침수된 어느 학교에서 책걸상을 나르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옷깃을 여미자.

〈필자=유네스코 청년원 지도교수〉